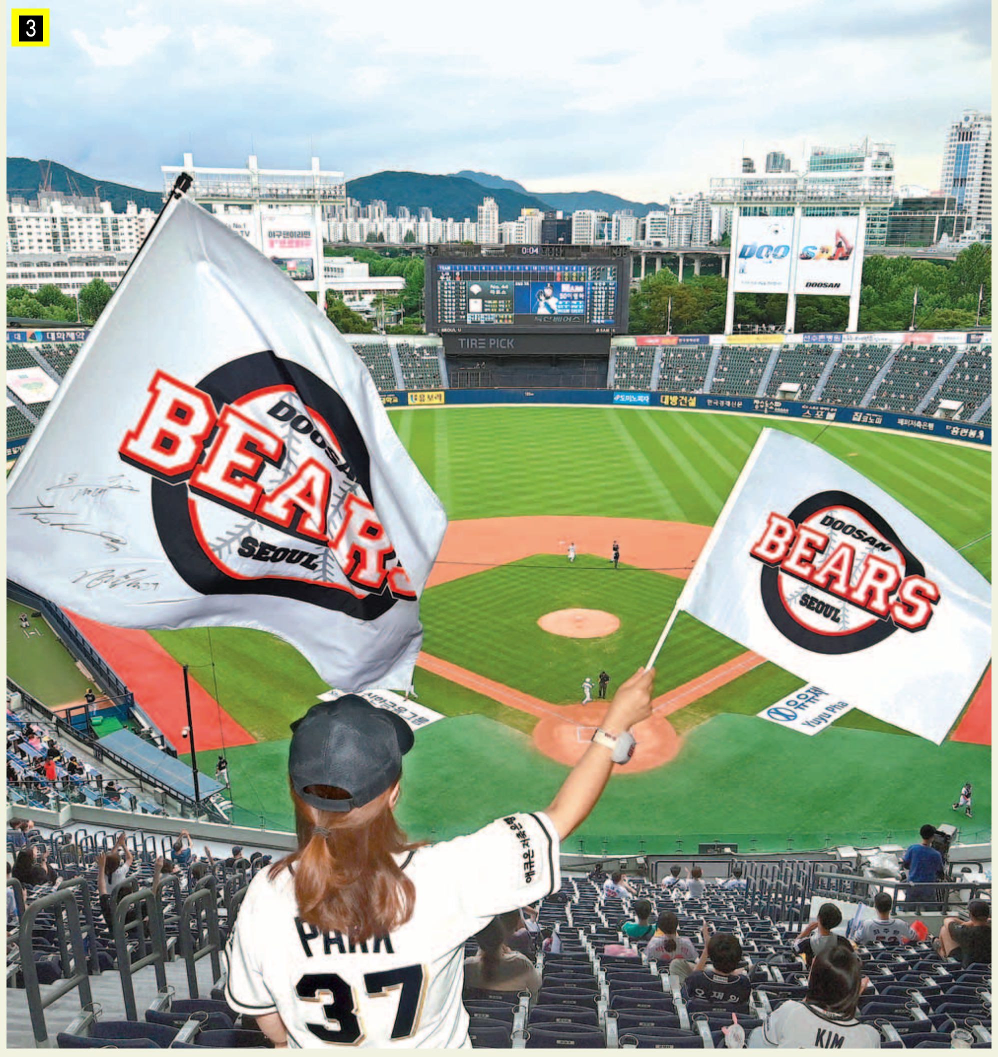

집관 끝! 직관 시작! KBO리그는 26일부터 각 구장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관중맞이를 시작했다. 1 잠실구장을 찾은 두산 팬들이 입구에서 체온측정을 받고 있다. 손 소독제 사용도 필수다. 2 어린이들도 야구가 그립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원KT위즈파크를 찾은 KT의 한 어린이 팬이 체온측정을 받고 있다. 3 '얼마만의 직관인가' 두산 팬들이 구단 깃발을 흔들며 열렬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수원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프로야구 직관 첫날' 1면에서 이어집니다

양 팀 사령탑의 생각도 같았다. 이강철 KT 감독은 "마치 5월 같다. 팬들께서 오시면 더 흥이 나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제 야구장 분위기가 난다. 젊은 선수들은 관중이 오면 긴장할 수 있겠지만, 응원을 받으면 힘이 나서 구속도 더 나오지 않겠나. 멜 로하스 주니어 등 한창 페이스가 좋은 선수들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동욱 NC 감독은 "좌석에 앉아계신 팬들을 보니 익숙한 느낌이 들고, 설레기도 한다"며 "야구가 다시 돌아오는 시발점이다. 팬들과 함께 가는 것이 프로야구의 핵심이다. 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많이 입장하셔서 더 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두산 베어스전은 총 수용인원의 10%인 2424석이 티켓 예매를 시작한 지 1시간25분 만에 매진됐다. AP통신, 로이터통신, CNN 등 외신 7개사가 몰려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관중이 있어야 활력이 있고, 선수들도 집중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고, 류중일 LG 감독도 "관중 입장은 반가운 일"이라고 거들었다.

고척스카이돔에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키움 히어로즈전도 전체 좌석의 10%인 1674석이 예매 오픈 40여 분만에 매진돼 인기를 실감케 했다. 손혁 키움 감독은 "우리 팀에는 활기찬 선수들이 많아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허문회 롯데 감독은 "프로스포츠는 관중이 있어야 흥이 난다"고 반겼다.

되살아난 강백호를 향한 이강철 감독의 시선

"강백호, 강하게 키워야죠"

데뷔 첫 슬럼프 깨고 11경기만에 멀티히트
스스로 멘탈 회복에 흐뭇 "이제 얼굴 폈더라"

강백호

"강하게 키워야죠."

KT 위즈의 '괴물타자' 강백호(21)는 최근 극심한 부진으로 마음고생을 겪었다. 9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이 끝난 뒤 0.333이었던 타율은 24일 수원 NC 다이노스전을 마쳤을 때 0.297까지 급전직하했다. 3할의 벽은 무너졌고, 이 기간(10~24일) 10경기에서 타율 0.154, 1홈런, 3타점에 그쳤다. 특히 득점권에선 15타수 1안타(타율 0.067)로 전혀 제 몫을 해내지 못했다.

프로 데뷔 이후 사실상 처음 맞은 극심한 슬럼프였다. 부상이 아닌 단순한 부진이라 더 크게 부각됐고, 팀이 한창 상승세를 타던 시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짓눌렀다. 25일 수원 NC전에선 모처럼 결승타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기여했는데, 이 같은 활약이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는 바로 멘탈(정신력) 회복에 있다. 3할 타율 회복(0.302) 및 9일 이후 11경기만의 멀티히트와는 별개다.

이강철 KT 감독도 일단 강백호가 부활 조짐을 보인 것에 매우 만족하는 눈치였다. 26일 수원 NC전에 앞서 "일단 (강)백호가 어제 쳐줘서 얼굴도 좀 펴진 것 같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다. 방송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울 것 같더라. 그래도 (25일에는) 안타 2개를 쳐줬으니 앞으로도 편안한 마음으로 타석에 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백호가 KT 타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입단 첫해(2018년) 약점으로 지적됐던 선구안까지 개선돼 점점 더 빈틈없는 타자로 변모하고 있다. 지금의 슬럼프는 강백호가 최고의 타자로 도약하기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며 얻는 노하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자산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강하게 키워야죠"라는 이 감독의 한마디도 이를 의미한다.

수원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키움 7월 내리막길…1선발 브리검 또 팔꿈치 통증 호소

"매 경기가 위기"…시험대 오른 손혁 감독

"장기적 부상땐 김태훈으로 대체"
팀 부진·주축들 부상 '설상가상'
작년 준우승 성과 팬들 우승 기대
'독이 든 성배' 잘 헤쳐나갈지 관심

손혁 감독

"훈련이 끝난 뒤 갑자기 팔꿈치가 안 좋다고 하더라."

1선발 제이크 브리검(32)의 팔꿈치 통증 소식을 '다시' 전하던 키움 히어로즈 손혁 감독(47)의 말 속에선 씁쓸함이 묻어났다. 최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투수들이 가뜩이나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 악재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손 감독은 26일 고척 롯데 자이언츠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브리검의 몸 상태에 대해 밝혔다. 브리검은 이미 5월말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1군 엔트리에서 장기간 이탈한 바 있다. 그런데 1군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통증을 호소해 휴식이 불가피해졌다.

손 감독은 "27일 병원 검진을 받는다. 주사치료도 받을 예정인데, 이후 투구를 지켜보고 등판 날짜를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이 끝나고 좋지 않다고 하더라. 장기적인 부상이면 김태훈을 대체선발로 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6월 25경기에서 19승6패를 기록하며 10개 구단 중 월간 승률 1위를 차지했던 키움은 7월 들어 유독 힘이 빠진 모습이다. 26일까지 7월 한 달간 승률 5할을 채우지 못해 최악의 승패 마진을 기록했다. 상위권을 노렸던 팀은 어느새 중위권에서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키움은 선발진의 거듭되는 부진과 타선의 침체가 맞물려 순위 그래프가 내리막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주축들의 부상 소식까지 끊임없이 나와 설상가상인 형편이다. 그나마 기대해볼 반등요소는 28일부터 1군에 합류하는 새 외국인 타자 에디슨 러셀(26)의 존재감뿐이다.

키움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거머쥔 팀이다. '분명한 성과'를 내고도 기존 사령탑인 장정석 전 감독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초보 사령탑인 손 감독에 지휘봉을 맡겼다. 팬들과 내부의 기대치는 당연히 '맨 위'로 향해 있을 수밖에 없다. 손 감독은 이른바 '독이 든 성배'를 받아든 것이다.

그러나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비난의 화살은 조금씩 사령탑을 향하고 있다. 손 감독은 "매 경기가 위기"라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지만, 7월의 분위기는 유독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다.

손 감독으로선 그야말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위로 올라갈 동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한 채 독이 든 성배의 희생양이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키움의 여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고척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나무한화보살"… '보살 팬들' 100패 위기 막아줄까?

오늘 대전 이글스파크서 첫 유관중
수년간 팀 부진해도 열렬했던 팬들
최악 성적 탈출 동기부여 될지 기대

정부 및 방역당국의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허용 발표가 나오면서 KBO리그는 26일부터 유관중으로 전환됐다. 잠실, 고척, 수원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정도가 입장함에 따라 그동안 입장수입 감소를 비롯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했던 KBO리그 각 구단은 뒤늦게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대전, 광주에서도 26일 경기가 펼쳐졌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관중 입장시기를 살짝 늦췄다. 대전이 연고지인 한화 이글스는 "27일 이후부터 관중 입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때마침 25일 우천으로 취소된 SK 와이번스와 홈경기가 월요일인 27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한화로선 올 시즌 팬들과 첫 만남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 관중이 홈구장을 찾지 못하는 사이 팀은 KBO리그 역대 최다타이인 18연패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한용덕 전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최원호 감독대행이 팀을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최하위에서 어려운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3할이 채 되지 않는 승률, 이미 멀어진 가을야구 등의 이유 때문에 많은 관중이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를 찾을 확률은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현 상황에 놓인 팀이 다른 팀이 아닌 '한화'이기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화 홈팬들은 최근 수년간 팀이 부진한 성적을 내는 와중에도 열정적 응원으로 선수단에 기를 불어넣어줬다. '보살 팬'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홈팬들은 관중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에도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외야 뒤쪽 보문산에 올라 한화의 팀 깃발을 흔들며 뜨거운 응원을 펼친 바 있다.

어려운 싸움 속 팬들의 응원은 분명 선수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육성응원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수들에게는 팬들이 홈구장을 찾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날개 꺾인 독수리들이 보살 팬들과 다시 만나 원기를 회복할 수도 있다. 한화생명이글스파크의 관중 입장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미지급당첨금 기금귀속안내

동행복권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1등 당첨금 : 1,922,582,588원

Lotto 6/45 제 869회차 2019년 7월 27일 추첨

당첨번호 : 2 6 20 27 37 39

당첨번호 6개 숫자일치

1등 당첨점 : 전북 장수군 장천로 170(대박로또방)

※ 지급기한 : 2020년 7월 28일 까지

※ 1등 당첨금 지급처 : 농협은행 본점 복권사업팀(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85번지 15층) / 문의전화 1588-6450

Lotto 6/45 921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20년 07월 25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5	7	12	22	28	41	1

1등 총 당첨금 20,953,747,885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17	1,232,573,405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72	48,504,047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682	1,302,123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29,993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2,101,238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클린센터 080-800-0501 www.clean.dhlottery.co.kr